

우리나라 帶鉤·帶先金具에 관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의류직물학과
강사 윤 양 노

目 次	
I. 序 論	3. 新羅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II. EURASIA 대륙과 SCYTHIA 문화	4. 加倻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III. 우리나라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IV. 結 論
1. 高句麗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참고문헌
2. 百濟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I. 序 論

帶鉤·帶先金具는 鈎帶를 구성하는 한부분으로 帶鉤는 鈎帶의 한쪽끝에 달아서 鈎帶의 둘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帶鉤의 중앙에는 찌르개 역할을 하는 棒狀의 금속으로 침을 橫으로 달아 革帶에 있는 구멍 혹은 革帶의 다른끝에 끼워 帶를 고정시킨다.¹⁾

革帶는 원래 遊牧 民族 服飾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帶鉤또한 北方民族 사이에서 일찍부터 사용되었다. 서양에서는 고대 로마제국시대 이후 널리 켈트족, 게르만족이 사용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中國은 漢代에 이르러 盛行되었고 南北朝時代 이후 널리 보급되었다.²⁾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官吏에 布帛帶의 착용을 폐하고 革帶를 착용하는 풍습이 유행하였고 戰國時代墓副葬品에서 匈奴服 차림의 女性像이나 胡服 차림의 男性像이 출토되었다. 여성의

의복은 筒袖에 주름이 있는 치마를 입고 半長靴를 신고 머리는 두갈래로 따서 좌우로 드리웠다. 남자는 筒袖의 깃을 접은 형태의 垂領衣를 右襟으로 착용하고 짧은 바지에 革帶를 조르고 韃靼의 귀덮개가 있는 모자를 쓰고 있다. 中國의 帶鉤에 대한 유물로는 河南省 洛陽附近 戰國時代 墓에서 玉을 象嵌한 黃金製의 帶鉤가 출토 되었다.³⁾

우리나라는 高句麗, 百濟, 新羅, 伽倻 古墳에서 다수의 帶鉤·帶先金具가 출토 되었다. 이러한 帶鉤는 靑銅器時代에 유민족인 스키타이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출토지 미상의 伽倻古墳에서 출토된 馬形帶鉤 5점과 경상북도 영천군 금호면 어은동 출토 馬形·虎形帶鉤와 같은 動物形 帶鉤는 서쪽으로는 흑해연안 스키타이로 부터 동으로는 中國의 북쪽변방에 이르기까지 북방 유라시아에 분포하고 있으며 日本에서도 岡山 県吉備郡 新主下墳에서 같은 종류의 馬形 帶鉤가

1) 尹世英, 古墳出土副葬品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p.27.

2) 水野清一·小林行雄, 「圖解考古學辭典」, 東京: 創元社, 1959. p.150.

3) 東西の服裝史, 衣生活研究會, pp.36-37.

6점 출토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고분 출토의 찌르개가 달린 여러 형태의 帶鉤 또한 흑해와 연결한 북방민족이 사용하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帶를 연구하기에 앞서 북방문화와 스키타이 예술 양식과 깊은 연관성을 갖는 鈐帶의 구성부분인 帶鉤·帶先金具를 통한 형태 분석 및 발전 과정, 다른 문화와의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 범위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분에서 출토된 帶金具 자료 중 帶鉤와 帶先金具를 비교적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고구려 고분출토 유물-1점, 백제 고분출토 유물-4점, 신라 고분출토 유물-10점, 가야 고분출토 유물-4점)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고분 발굴 자료 보고서, 고분 출토품, 관계 문헌을 통해 연구하였다.

연구 한계점은 우리나라 고분은 이미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일부는 도굴되거나 지역 개발로 인한 인위적 훼손이나 부식 등에 의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에 대한 명확한 형태를 알 수 없었고 또한 다른 문화권 출토 자료에 대해서는 문헌에 의존해야 하는 점이다. 91년 스키타이 황금 유물전은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II. Eurasia 대륙과 Scythia 문화

중앙 아시아는 중앙아시아 본토와 시베리아, 남쪽에 거대한 Eurasia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B.C. 1000년 중앙아시아 본토는 Bactria(현재 Afganistan), Sogdia(현재 Uzbekistan, Tazhikis-

tan), Chorasmia(현재 Tashkent 지역), Ferghna(현재 Uzbekistan 일부)와 같은 봉건 제국의 도시에서 도시미술품이 형성되었고 Eurasia 대륙에는 남 러시아의 스키타이인 예술의 본질을 이루는 “Animal Art”를 실행하는 유목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청동기는 B.C. 2000~3000년 Eurasia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고 청동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유물들이 남부 스텝지역에서는 Cimmerica, Scythia, Sarmatia 문화권에서도 보여지며 중앙아시아에서는 Andronovo, Karasuk 및 Tagar 문화권에서 보여지고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商 및 周 문화기의 고분 출토품을 통해 볼 수 있다.

남부 스텝지역의 청동기 유물들은 도끼, 나뭇잎 모양의 날이 달린 短劍, 부리모양의 갈고리 장식, 바닥이 평평한 도기등으로 특성 지을 수 있고 이 지역 거주인들은 유목생활, 좌식생활, 목축 및 농업경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문화를 갖고 있던 종족은 킴메르족 이었다.

B.C. 8세기에서 B.C. 4세기 스키타이인들은 킴메르족을 내몰고 서쪽으로는 Danube에서 동으로는 중국을 경계로 영토를 확장해 갔다. 이들은 Indo-Iran 어를 사용하였으나 쓰기에 대한 체계는 아직 있지 않았다. 그들은 유목민 정복자였으며 말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다.

소위 Royal Scyths들은 B.C. 9세기에 동쪽 크리미아에서 왕국을 건설한 지배계급이다. 인습적으로 스키타이인이라 하면 Danube와 Don강 유역을 생각해 하나 근대에 들어 알타이 산맥, 특히 Pasyryk 발굴은 그들의 원초는 동쪽과 남쪽으로 이동하기

4) 考古學辭典, 전개서, p.606.

용어 정의

帶鉤: 우리나라 고고학 용어로는 띠고리, 帶의 한쪽 끝에 달아서 帶의 둘레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鉸具라고도 하나 이를 帶鉤로 통칭하였다.

馬蹄形 帶鉤: 말발굽 형태의 帶鉤

鑲頭形 帶鉤: 馬蹄形과 달리 끝부분이 둥글고 외각선이 들어간 형태

隋圖形 帶鉤: 鑲頭形과 唐草紋形의 중간 형태로 보이는 帶鉤.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명칭을 사용하였다.

唐草紋形 帶鉤: 帶鉤의 끝부분이 당초문을 연상케 하는 것.

棒狀찌르개: 帶鉤의 가운데 부분에 작은 막대기형 찌르개. 帶先金具에 끼워 고정침 역할을 한다.

帶先金具: 우리나라 고고학 용어로는 띠끝장식. 帶端金具라고도 하며 鈐帶의 다른 끝에 달린다.

長方形 帶先金具: 형태가 비교적 길고 네모진 것.

圭形 帶先金具: 圭와 같이 생긴 帶先金具.

진인 시쪽 시베리아 지역임을 제시해 준다.

때로 남부 스텝예술품을 스키타이 예술로 정의되곤 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성급하다. 실제로 4개의 서로 연관된 문화들이 총칭되어야 한다.

1. Moldavia 및 Ukraine 종족의 문화로 이들은 시베리아 등지의 수목없는 스텝의 초원지대에 거주하며 Lithania족과 함께 Slave 계열의 문화물 이룬다.

2. Scythian 문화로 Bug의 하류, Denieper강 하류 및 Azov 해의 유목민과 농부들의 문화이다. Slave족과 구분되는 이들은 북부 Iranian 계열이다. 이들의 문화는 Cremia 고대고분 출토품에서 그 유물을 볼 수 있다.

3. Kuban에 있는 Sindo-Meotic 종족들의 문화로 수풀지역과 Caucasus의 종족들과 많은 접촉을 했다. 이들은 B.C. 3세기 이후 Sarmatia 종족의 침투로 변화를 겪게 된다.

4. Volga강 유역(Basin) 및 Ural Steppe 지역의 Sarmatia 종족의 문화로 서부 시베리아 문화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상의 4문화권으로 이루어진 스키타이 문화의 특징은 청동제 무기와 동물형태의 장식요소이다. 이러한 특성들은 Pasyryk 예술에서도 보여지고 있다.⁵⁾

Ⅲ. 우리나라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서기전 1000년 경부터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 몽고, 만주를 거쳐 오는 새로운 민무늬 질그릇(無紋土器)이 퍼져가고 있었다. 서기전 600-700년 경부터는 러시아의 예니세이강 상류의 미누신스크 지방에서 내몽고의 오르도스 지방에 걸쳐 기마 청동인이 남향 이동이라는 큰물결이 한반도에까지 여파를 던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언제 청동기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없으나 유입된 청동기는 북방계 청동기로 미누신스크-스키타이-오르도스문화가 섞인 청동기문화이다.

우리나라 청동문화의 일반적 특징은 거석문화, 동경문화, 바닥이 평평한 민무늬 질그릇, 비파형 낫단검(琵琶形銅劍), 낫창(銅鎗), 낫도끼(銅斧), 다뉴세문경, 낫방울(銅鈴), 낫띠고리(靑銅製帶鉤), 수레부속품(車輿具), 동물위주의 岩刻畫 등이 다.⁶⁾

특히 이들 중에서 출토지 미상 가야고분 출토 청동제 馬形帶鉤(말모양 띠고리), 경상북도 영천군 어은동 출토 B.C. 1세기-A.C. 4세기로 추정되는 馬形·虎形帶鉤는 B.C. 4세기 스키타이 마스터우기노 출토 동물형 靑銅帶鉤, B.C. 5세기-B.C. 2세기 추정 오르도스에서 출토된 靑銅帶鉤와 양식이 매우 흡사하여 이를 통한 帶鉤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1. 高句麗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고구려 고분 출토품중 帶金具의 출토는 심귀리 第1號墳-鎊板1점, 輯安縣七聖山 第96號墳-鎊板3점, 大同郡高山理 第9號墳-鎊板1점, 大聖山 植物園區域 第15號墳-帶鉤1점 이다. 고구려의 帶鉤를 알 수 있는 大聖山 第15號墳의 것은 길이 4.2cm, 넓이 2.1cm 馬蹄形 帶鉤이다. 帶鉤의 가운데에 棒狀의 찌르개가 달려 있어 帶의 다른 쪽에 걸어 고정시키게 되었다. 하나만인 것은 고구려 다른 고분에서 帶金具가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부식되어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구려 고분 출토품중에서 帶先金具가 발견된 것은 없다.

2. 百濟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帶鉤·帶先金具가 출토된 고분은 武寧王陵 銀製帶鉤, 宋山里 第1號墳-靑銅製帶先金具, 宋山里 第2號墳-靑銅製帶先金具, 宋山里 第5號墳-靑銅製帶鉤이다. 과거 경주를 중심으로 화려한 金冠을 비롯하여 수많은 장신구들이 출토되어 주로 신라고분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및 고고학 연구가 이루어졌었다. 따라서 백제 고분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백제고분은 자연 파괴되거나 지역개발에 의해 인위적 훼손이 많고 또는 도굴된

5) Encyclopedia of Prehistoric and Ancient Art : Art and Mankind, New York, 1957, p.230.

6) 金基雄, 韓國의 原始古代美術, 正音社, 1974, p.37.

것도 있어 그로인해 副葬品의 발굴수가 많지 않다. 근간에는 백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무령왕릉 발굴 조사를 시효로 출토 유물을 통한 연구가 가능케 되었다.

武寧王陵 出土 銀頭形帶鉤는 총 길이 70.4cm 銀帶로 좌, 우 끝에 꽃잎형 金具를 달고 한쪽 끝에 銀頭形帶鉤가 달려있다.

宋山里第1虎墳 출토 金銅製帶鉤는 금동판 2매를 잘라 붙이고 끝에 붙은 2개의 꼭지로 帶의 다른 끝을 끼워 고정시킨 듯 하다.

宋山里 第5號墳 출토 金銅製帶鉤는 隋圓形을 이루고 끝에는 長方形의 金銅板이 달려있다.

3. 新羅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신라는 고구려, 백제보다 고대 국가의 성립이 늦고 불교의 전래도 뒤졌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중국과의 접촉 기회도 적었다. 그러나 신라는 그들 문화의 후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구려, 백제 문화 수용과 중국의 北朝 文化와 南朝 文化를 이해하면서 귀족적이고 불교적 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섬세하고 화려, 사치한 문물을 소생케 하여 장신구도 고구려, 백제보다 훨씬 호화롭고 정교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신구류가 일반 민중까지 널리 패용된 것은 아니고 왕족 또는 귀족 상류 계급에서만 유행했다. 경주를 중심으로 각종의 다양한 귀금속의 장신구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도 신라인들도 死者에 대한 내세관 영혼관에 대한 믿음이 컸다고 생각된다.⁷⁾

특히 출토품에는 여러 형태의 腰佩장식이 달린 국보급의 帶가 출토되었는데 鍔帶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腰佩가 갖는 의미연구가 요구된다. 요패장식이 있는 帶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샤만의 帶에서도 보여짐으로 매우 흥미롭다.

신라 고분 출토 帶鉤·帶先金具는 (표 1)과 같다.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청동제 帶鉤는 3개가 있는데 이들의 형태는 각기 다르다. 경북 영천군 출토

馬形·虎形 대구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북방민족 특히 오르도스, 스키타이 마스티우노 출토유물과 같은 동물양식 예술의 표현이다. 따라서 가야 고분 출토 유물과 함께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인간 사회의 최초 형태는 수렵과 군집생활이다. 이들의 정신적 주체는 하늘과 동물세계였다. 동물도 사람처럼 영혼을 갖고 있다고 믿으며 사람과 동물간에 깊은 관계를 맺었다. 동물의 영혼과 하늘, 인간의 영혼을 연결하는 사람은 샤만이였다.⁸⁾

동물양식 예술의 대상이 되는 동물들은 각기 특별한 의미를 내포한다.

말은 종교적 믿음, 매장 풍습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초기 청동기 시대에는 말의 머리를 칼날에 세졌는데 말은 태양을 의미한다. 덴마크 Fadal에서 금눈(Gold Eye)을 갖은 작은 청동 여신이 발견되었는데 크레타 여신처럼 손에 뱀 대신 말의 머리를 들고 있다.

호랑이는(虎) 고대 페르시아지역과 아시아가 원산지이다. 중세 동물우화집에 따르면 타이거란 이름은 티그리스강에서 비롯된 것이다. 호랑이가 Bacchus(술의 신)의 수레를 끄는 모습이 예술작품에 표현 되어있다.⁹⁾ 중국에서 호랑이는 용(龍)에 반대되는 의미로 표현된다. 즉 용은 하늘, 정신세계, Yang의 요소로 표현되는 반면 호랑이는 서쪽, 땅, 인간의 물질세계, Yin의 의미로 표현된다. 호랑이는 강인한 힘과 에너지 등 호랑이 자체의 모습에서 비롯해 단독으로는 Yang의 심벌로 사용된다.¹⁰⁾

신라 고분출토 帶鉤·帶先金具의 재료로는 靑銅, 銀, 金이 사용되었고, 帶鉤의 형태는 動物形에서 馬蹄形-隋圓形-唐草紋 형으로 변화 되었다고 생각된다. 당초문 형태로 갈수록 찌르개가 길고 날카롭고 과대의 길이가 길어지며 腰佩장식의 수가 많아지고 그 길이도 길어 외관이 더욱 화려하다.

帶先金具는 간단한 長方形의 것은 보이지 않고 한쪽끝이 둥근 형태에서 점차 圭形을 이룬다.

皇南大塚北墳 出土의 것은 帶先金具에 여러개의

7) 尹世英, 전개서, p.56.

8) Robert S. Ellwood, Jr., An Introduction To the Religious Life Of Mankind, New Jersey, 1976, p.20.

9) Dictionary of Subjects Symbols In Art, New York, 1974, p.303.

10) Dagobert D.Runes, Harry G.schrckel, Encyclopedia Of The Arts, New York, 1946, p.980.

화려한 떨잠이 달려있다.

〈표 1〉 신라 고분 출토 帶鉤·帶先金具

古墳名	出土 帶鉤·帶先金具	時代	특 징
경상북도 영천군 어은동 고분	馬形·虎形 帶鉤	B.C.I— A.D.1세기	후면에 돌출된 작은 부분을 확대에 있는 구멍에 걸어 착용했다고 생각 됨
경주 장군로	靑銅 帶鉤	A.D. 5— 6세기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매우 짧은 찌르개가 달린 좁고 긴 타원형 帶鉤
미추왕릉 지구 계림로 14호	靑銅 帶鉤	"	옆 넓이 4.3cm 청동 帶鉤로 금으로 된 금장귀면장식이 붙어 있다. 장군로 출토 것과 같은 형태이나 두께가 얇고 찌르개가 뾰족하다.
飾屨塚	銀製 帶鉤	"	馬蹄形 帶鉤, 가운데 찌르개가 붙어 있다. 한쪽 끝이 둥근 帶先金具가 부착되어 있다.
皇菩里 第33號墳	銀製帶鉤	"	銀頭形에서 唐草紋形으로 변화되기 전인 隋圓形 帶鉤
皇南大塚 南墳	金製 帶鉤 金製 帶先金具	"	보물 제629호, 과대길이—115.2 cm 과관—34매, 7개의 腰佩 馬蹄形 帶鉤가 양쪽에 붙어 있다. 圭形 帶先金具가 따로 떨어져 있다.
端鳳塚	銀製 帶鉤 銀製 帶先金具	"	과대길이—120cm, 8개의 腰佩 唐草紋形 帶鉤, 圭形 帶先金具
皇南大塚北墳	金製 帶鉤 金製 帶先金具	"	국보제192호. 과대길이—120cm. 13개의 腰佩. 唐草紋形 帶鉤. 帶先金具에 둥근 금판의 떨잠이 부착되 있다.
天馬塚	金製 帶鉤	"	국보 제190호 과대길이—125cm. 13개의 腰佩 唐草紋形 帶鉤, 圭形 帶先金具
金冠塚	金製 帶鉤 金製 帶先金具	"	국보 제88호. 과대길이—162cm. 40여개의 腰佩 唐草紋形 帶鉤 圭形 帶先金具 가장자리에 連點鑿形

4. 加耶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가야에 대한 한자 표기로는 加耶(삼국사기), 伽耶(삼국유사), 伽倻(동국여지승람) 그외에도 加羅·加良·加洛國·駕洛國·狗耶 등으로 불리운다. 가야 고분은 6가야 즉 함창, 성주, 고령, 함안, 김해, 고성등 6가야의 古地를 중심으로 낙동강 유역에서 출토되었다.¹¹⁾

가야 고분 출토유물 중 帶鉤는 출토지 미상의

馬形 帶鉤5점, 梁山夫婦塚 출토 帶鉤1점, 昌寧 校洞 A地區 출토 帶鉤·帶先金具, 仁同面黃桑洞 第1號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大邱 飛山洞 출토 帶鉤와 大邱 內唐洞 第51號墳 出土 銀製 帶鉤, 星州 星山洞 第1號墳 出土 銀製 帶鉤, 釜山 華明洞 第3號墳 출토 帶鉤 등이다.

靑銅 馬形 帶鉤 6점은 말엉덩이 부분 뒷편에 가죽띠를 걸기위한 작은 못 머리 같은 것이 돌출되

11) 千寬宇, 역사상(歷史上)의 가야, 국립 진주 박물관, p.111.

있고 앞가슴쪽에는 띠고리를 걸기 위한 갈고리형 부속이 달려 있다.

仁同面 黃桑洞 제1호분 출토 帶鉤는 부식이 심해 없어지고 鐵板에 도금한 帶先金具가 출토되어 이로 보아 帶鉤 역시 鐵板에 도금한 것이라 생각된다.

大邱 內唐洞 51號墳에서는 銀帶鉤와 끝이 둥근 帶先金具가 발굴되었다.

昌寧 校洞A地區에서 출토된 鈔帶는 은판을 허리 띠 모양으로 오린 후 앞쪽 양쪽에 2개씩, 뒷면에 1개의 장식용 고리를 달았다. 대의 중앙부에 帶鉤·帶先金具가 부착되었던 흔적이 있다. <도 11>

VI. 結 論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고분 출토품을 통한 이상의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 위의 고분들에서 출토된 帶鉤는 크게 동물형 帶鉤, 가운데 찌르개가 있는 帶鉤로 형태는 馬蹄形, 鑲頭形, 隋圓形, 唐草紋形 帶鉤 순으로 발전했다고 생각된다.

2. 재료로는 靑銅, 鐵에 銀도금 한것, 銀, 金등이 사용됐다.

帶先金具는 동물형 帶鉤와 함께 발견된 예는 없고 그 형태는 장방형, 한쪽이 둥근형, 圭형 순으로 변화되었다.

3. 帶鉤의 형태가 唐草紋으로 변화하면서 찌르개

는 길고 예리하며 과대길이가 길어지고 腰佩 장식수가 많아지며 그 길이 또한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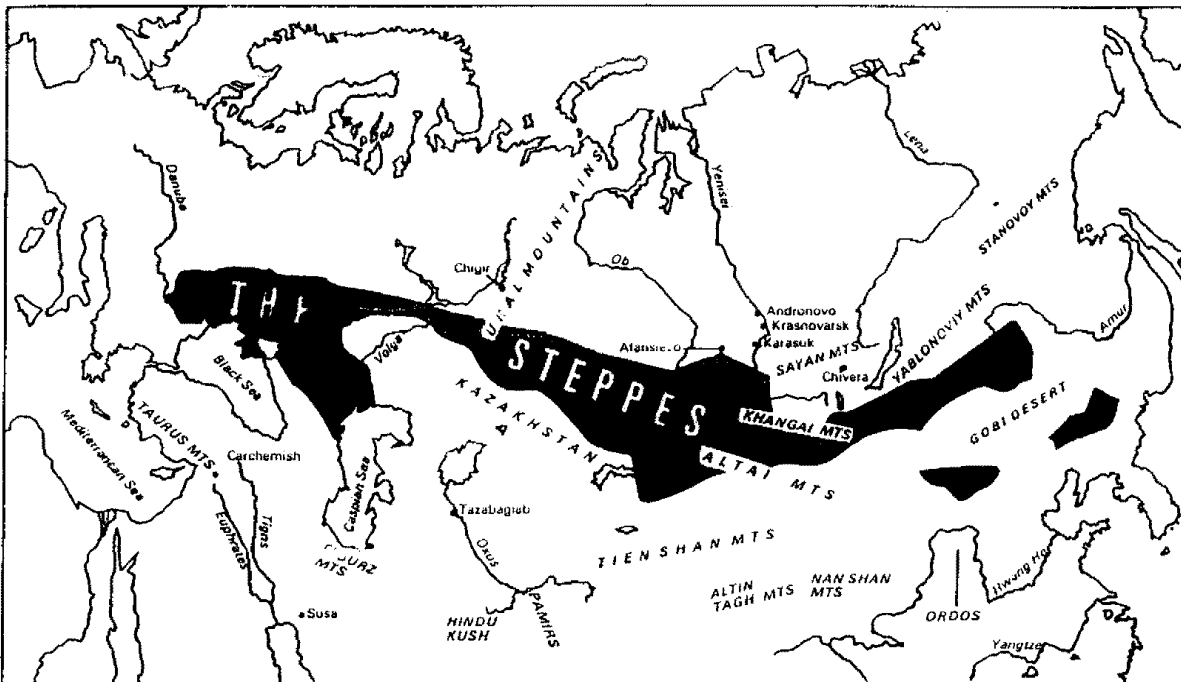
4. 신라에서 가장 화려하고 섬세한 帶鉤가 출토되었는데 건국 년도가 훨씬 뒤늦은 신라는 고구려, 백제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제나라 요나라를 통한 중국의 문화를 받아 들이고 불교의 융성과 더불어 내세를 믿게 되었다. 이러한 사상에 기인한 副葬의 풍습에 따라 이지역 고분들에서는 많은 유물이 발굴되었다. 鈔帶 역시 필요 이상의 긴 길이와 의미를 갖는 여러 종류의 腰佩 裝飾이 보여지고 있다.

5. 가야분 출토 馬形帶鉤와 경북 영천 출토 馬形·虎形 帶鉤와 같은 동물형 帶鉤는 북방민족 특히 오르도스, 스키타이 문화권, 동으로 일본에서도 같은 양식의 馬形帶鉤가 출토됨을 근거로 이지역 문화는 우리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 찌르개가 부착된 靑銅帶鉤는 흑해 북안 북방민족이 사용했던 형태와 매우 흡사하다. 또한 이들 지역은 “Animal Style(Nomad)”의 예술이 이루어진 지역과도 일치한다. 동불양식은 유럽의 기마 유목민, 헝가리로부터 스텝을 지나 북아시아와 고비사막에 까지 이들 지역에서 행해졌다.¹²⁾

帶鉤는 革帶의 발생과 더불어 사용된 것인데 帶鉤의 형태는 단순한 실용적 요구뿐 아니라 그시대 지역인들의 정신세계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의미를 지닌 여러형태의 鈔帶의 腰佩 장식에서도 그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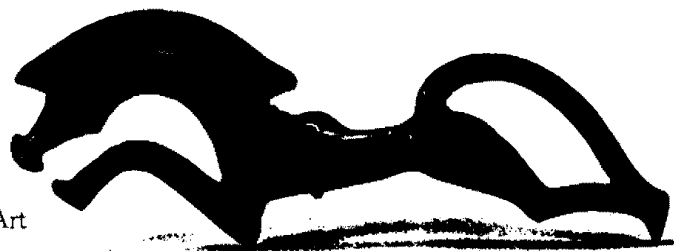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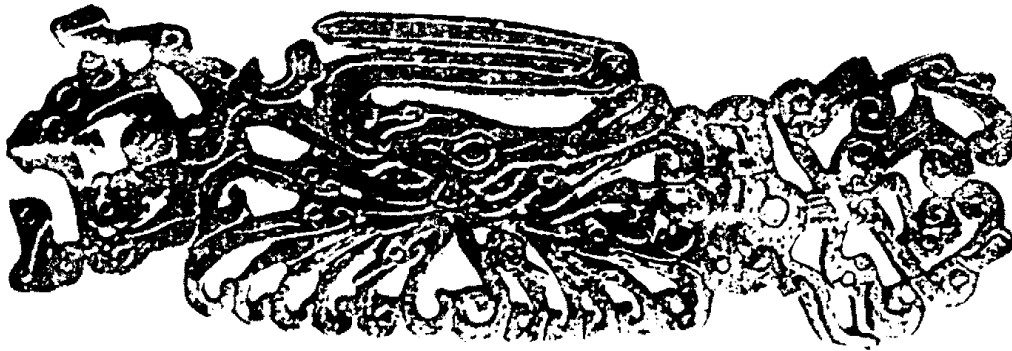
다음의 연구과제인 우리나라 腰佩 장식의 의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다면 帶를 통한 우리나라 복식의 계통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2) The Oxford Companion To The Decorative Arts, Oxford Univ. 1975, p.28.



<도 1> THE STEPP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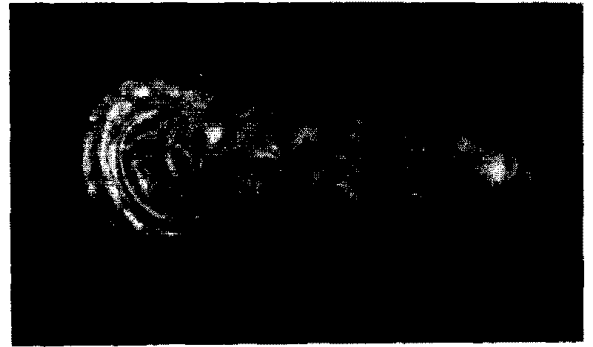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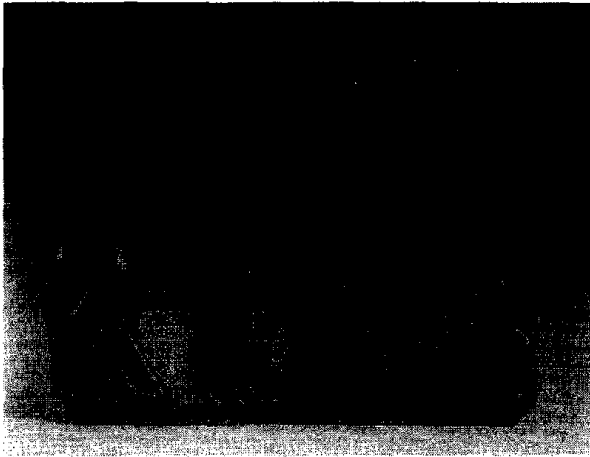
출처 : Encyclopedia of Prehistoric and Ancient 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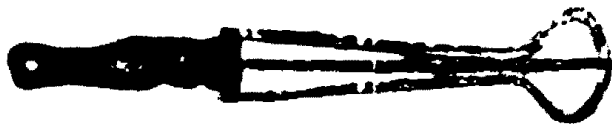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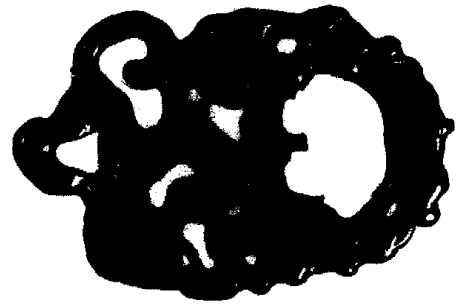
<도 2> KUBAN 문화권 출토 말모양 BUCKLE

출처 : 上) Encyclopedia of Prehistoric and Ancient Art

下) 스키타이 황금



〈도 3〉 시베리아 Saka 문화권 출토 靑銅 Buckle, Belt Terminal
출처: 스키타이 황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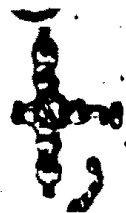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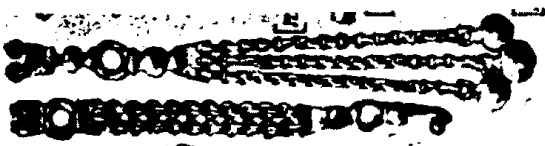
〈Bohemia 족의 Buckle〉



〈Slave 족의 Buck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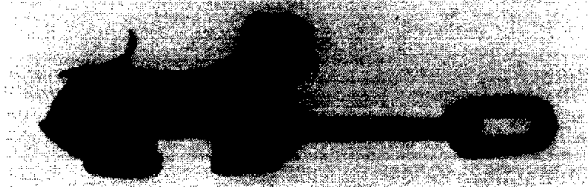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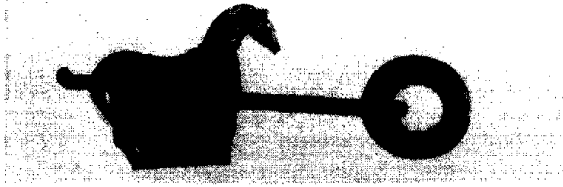
〈German 족의 Buck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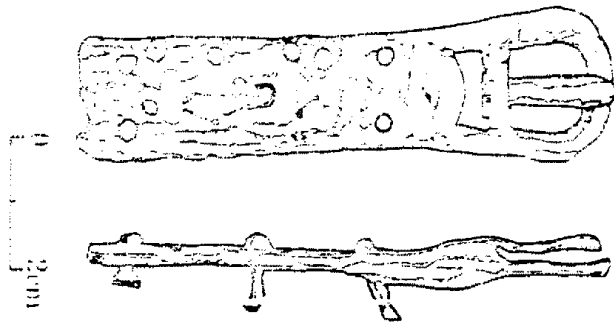
〈Celt 족의 Buckle〉

〈도 4〉 北方民族의 靑銅製 Buckle

출처: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Pl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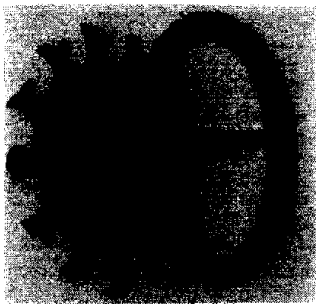
〈도 5〉 경상북도 영천군 어은동 출토 馬形(左)·虎形(右)
青銅帶鉤
출처: 국립 경주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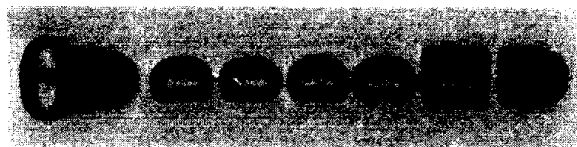
〈도 6〉 대성산 식물원 구역 제15호분 출토 帶鉤
출처: 古墳出土副葬品(高句麗古墳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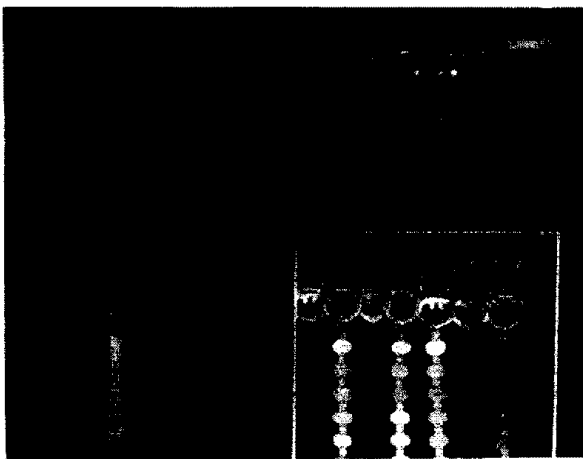
〈도 7〉 무령왕릉 출토 帶鉤
출처: 국립 공주 박물관 (百濟古墳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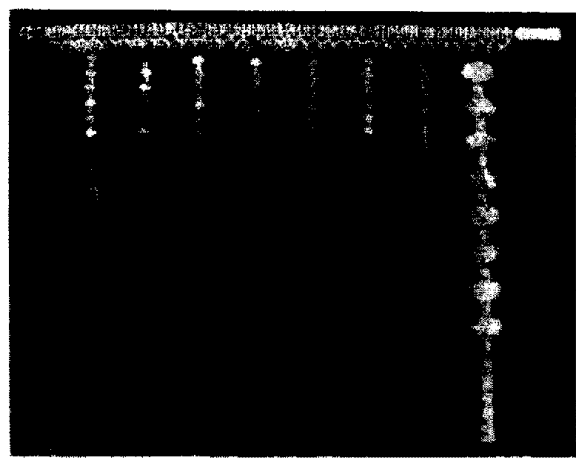
미추왕릉지구 계림로 14호분
出土 青銅 帶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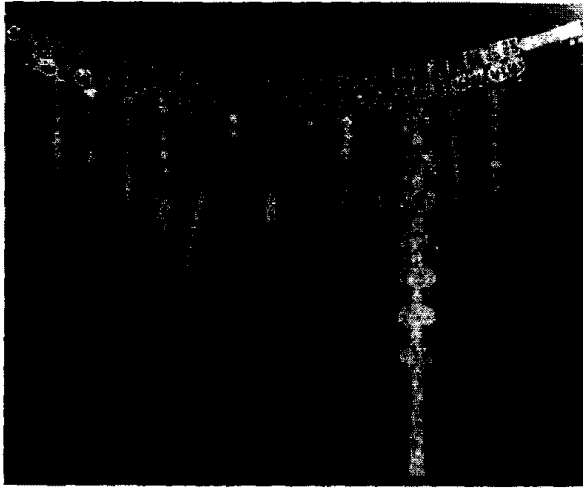
경주 장군로 出土 青銅製 帶鉤·帶先金具



皇南大塚 南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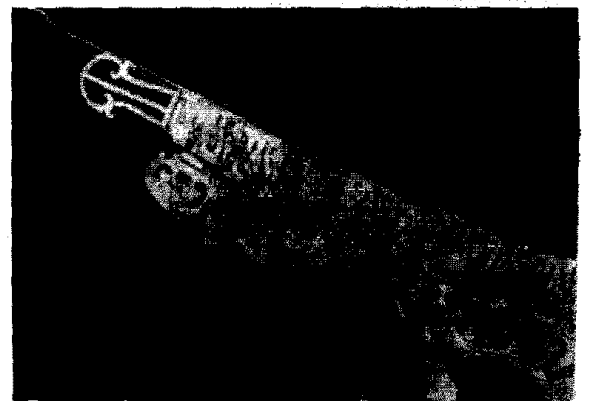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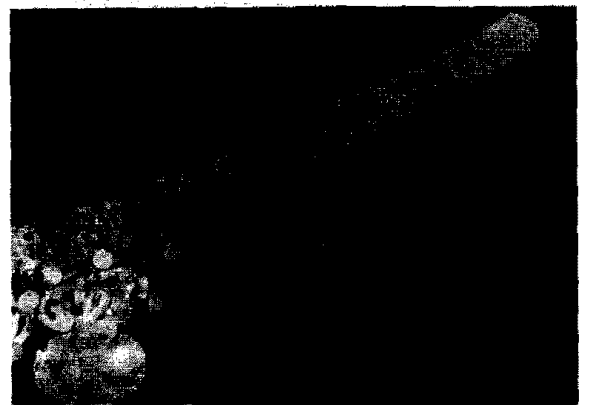


端鳳塚 出土 銀製 帶鉤·帶先金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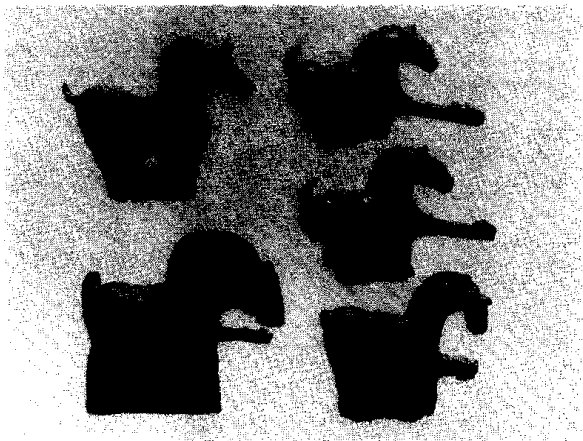


皇南大塚 北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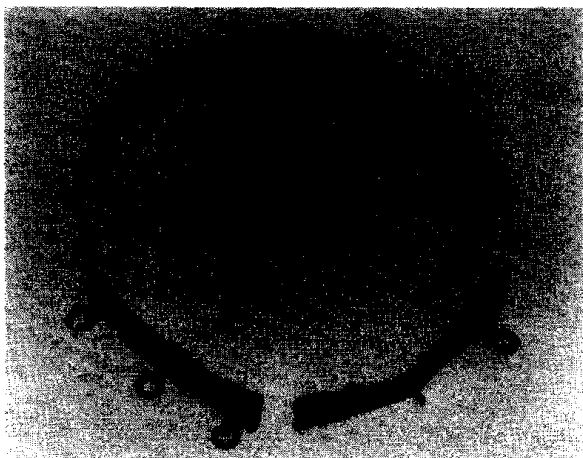
〈도 8〉 新羅 古墳 出土 帶鉤・帶先金具
출처: 국립 경주 박물관 (新羅古墳出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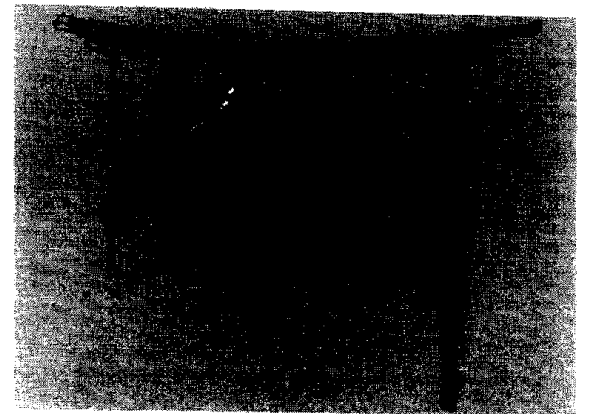
金冠塚 出土 帶鉤・帶先金具



〈도 9〉 馬形 帶鉤
출처: 국립 진주 박물관 (加耶古墳出土)



〈도 10〉 銀製 鈔帶
출처: 국립 진주 박물관 (加耶古墳出土)



〈도 11〉 昌寧 校洞 11, 12號墳 星州 星山 1號墳 出土
출처: 국립 진주 박물관 (加耶古墳出土)

참 고 문 헌

- 金基雄, 「韓國의 原始 古代美術」, 正音社, 1974.
- 尹世英, 「古墳出土副葬品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 연구원, 1988.
- 千寬宇, “역사상(歷史上)의 가야”, 국립진주박물관, 1990.
- 「天馬塚發掘調査報告書」, 文化財管理局, 1974.
- 「古墳美術」, 韓國의 美 22. 中央日報 「季刊美術」, 1985.
- 「公州博物館圖錄」, 국립공주박물관, 1991.
- 국립경주박물관, 1989.
- 국립진주박물관, 1990.
- 扶餘博物館陳列品圖鑑, 先史·百濟文化, 국립부여박물관, 1986.
- 「스키타이 황금」, 국립중앙박물관, 1991.
- 「東西의 服裝史」 服裝文化의 世界史的展望 一, 衣生活 研究會, 日本: 東京
- 水野清一·小林行雄, 「圖解考古學辭典」, 東京: 創元社, 1959.
- スギタイの藝術, 日本: 東京, 1971.
- 「Dictionary of Subjects Symbols in Art」, New York, 1974.
- 「Encyclopedia of Prehistoric and Ancient Art」, New York, 1957.
- 「Encyclopedia of The Arts」, New York, 1946.
- 「The Cambridge Ancient History Plates」, Vol. 3., London,
- 「The Oxford Companion to The Decorative Arts」, Oxford University, 1975.
- 「Scythian Art」, Gorges Charriere, Alpine, New York, 1979.